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 THOUSAND MILES FROM NOWHERE

가제 : 난데없이 시작된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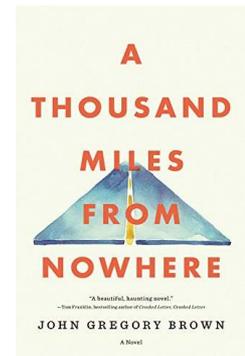
저자 : John Gregory Brown

출판사: Lee Boudreaux Books

발행일: 2016년 6월 2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결혼생활도, 재산도, 직업도, 집도 모두 사라져버린 40대 남자, 홀로 긴 여행을 시작하다

“가진 걸 전부 다 잃으셨죠?” 뉴올리언스를 떠나 3일 동안 정해진 목적지도 없이 이동하다가 마침내 찾은 빈 모텔에서, 반짝이는 사리를 걸친 여주인은 헨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딱 하루만 목을 거라는 헨리의 말에, 이미 눈물까지 핑 돌기 시작한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원하는 만큼 지내다 가라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방값은 무료라고 하면서 말이다. ‘내가 정말 가진 것을 다 잃었나?’ 헨리는 여주인의 질문을 곱씹으며 생각한다. 왠지 맞는 말 같기도 하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도시 전체를 물바다로 만든 이후, 텔레비전이며 라디오에서는 수해 상황과 구조 현황, 도움을 요청하는 비통한 음성들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문학 교사였던 헨리는 그 재난의 현장, 뉴올리언스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살아왔다. 하지만 사실 헨리는 모텔 여주인이 응시하던 텔레비전 화면 속에 펼쳐진 상황이 아직 닥치기 전에, 상처투성이가 된 가슴팍이 다 드러난 채 건물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남자처럼 끔찍한 상황을 맞기 이전에 이미 살던 집을 나섰다. 심상치 않은 일기예보와 도시를 폐쇄한다는 통보가 들린 이후, 마치 대형 축제가 일어난 후 전부 술에 취해 집에서 잠에 곪아떨어진 것 마냥 길거리에 사람 한 명 없을 때 출발한 헨리의 차는 미시시피를 거쳐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는 도로 위를 쉬지 않고 달렸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길가 모텔을 찾아도 자신처럼 서둘러 출발한 사람들이 많아 빈 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노랫가락과 여러 가지 생각들 틈바구니에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수재민으로 받아주는 어느 모텔에 다다른 것이다.

우연히 찾은 도로가 모텔에서 만난 사람들, 한 남자의 비극적이고도 코믹한 인생 여행

아내 에이미와의 결혼생활도 파탄이 나고, 물려 받은 유산은 모두 탕진하고, 교사라는 멀쩡한 직업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만두었으니 헨리는 모텔 주인의 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는지도 모른다. 에이미는 헨리에게 절대 철들지 않는 고집 센 사춘기 남학생 같다고 늘 말했다. 혀에 징을 박고,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를 스스로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면서 더 많은 상처를 얻고 싶어 하는 바보 같은 아이들 말이다. 마흔한 살 동갑이지만 어린애 같은 면이라곤 하나도 없는 아내를 떠올리며, 헨리는 새삼스레 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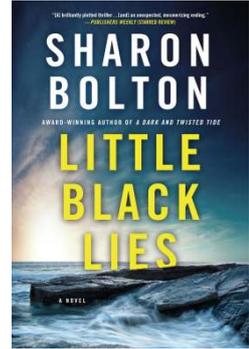
버지니아 주 작은 마을에서 찾은 모텔. 손님이라곤 자신 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루만 묵으려던 헨리에게 기이한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한 그는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끌려 들어가고 만다. 라탕기라는 이름의 미망인 여주인은 처음 헨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뒤에서 수상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헨리의 앞에 나타난 한 명의 여자, 마지는 교회 여신도 모임을 이끌며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었다. 이어 그는 몸이 아픈 아내를 돕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어느 수감자의 가족들도 만나게 된다. 집도 가족도 직업도 재산도 모두 잃은 헨리 앞에 나타난 이 이상한 사람들은 모두 누구일까? 감당할 수도,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 영켜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삶에 한 줄기 희망을 찾아 가는 한 남자의 코믹하고도 비극적인 여정이 펼쳐진다.

“인간의 운명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작가라는 호평과 함께 “리드미컬하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문체”라는 평가를 받은 작가는 플래너리 오코너, 워커 퍼시와 같은 거장들의 스토리텔링 전통을 지키며 믿음과 사랑, 구원을 찾아 나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독자들을 이끈다.

<저자 소개>

존 그레고리 브라운(John Gregory Brown)은 『Decorations in a Ruined Cemetery』, 『The Wrecked』, 『Blessed Body of Shelton Lafleur』, 『Audubon's Watch』 등을 쓴 작가로 린드허스트 상(Lyndhurst Prize), 릴리언 스미스 상(Lillian Smith Award)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현재 버지니아에 살면서 스위트 브라이어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LITTLE BLACK LIES
가제 : 못된 거짓말
저자 : S.J. Bolton
출판사: Minotaur Books
발행일: 2015년 5월 19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스릴 넘치는 소설" —워싱턴 포스트
"스릴러의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알리는 소설" —허핑턴 포스트
"거짓말과 배신으로 점철된 기막힌 줄거리를 보여주는 이 소설은, 예상치 못한 매혹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아름다운 섬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와 연이은 실종 사건, 끔찍한 거짓말이 부른 비극

남미 대륙과 가까운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섬이다. 하지만 푸르른 바다를 그저 평화롭게 볼 수만은 없는 사람들도 있다. 3년 전 두 아들이 절벽 위에서 자동차에 탄 채로 바다에 추락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된 끔찍한 일을 겪은 캐트린과 영국 해군으로 전쟁 당시 포클랜드 제도에 처음 발을 들였다가 종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사는 섬주인이 된 캘럼, 그리고 한 순간 실수로 가장 친한 친구의 두 아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레이첼, 적어도 이 세 사람에게게는 그랬다.

포클랜드 제도에서 나고 자란 캐트린은 재능 있는 생물학자가 되어 점차 사라져가는 섬의 생태계와 해양 생물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온 그녀지만 네드와 키트, 두 아들이 파도 속에 휩쓸려 가버린 이후에는 생을 이어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밖에 없다. 한 때는 가장 절친했던 친구이자, 절벽 끄트머리에 차를 주차하면서 실수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레이첼을 직접 없애는 것이다. 전남편은 이혼 후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캐트린은 그 비극적인 사고 이후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오로지 살인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한다.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레이첼을 죽여야겠다는 굳은 다짐만 되새기며 사는 캐트린은,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사형을 당하건 무슨 일을 당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캘럼은 그런 캐트린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1982년 4월,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불법 점거한 것으로 간주한 아르헨티나가 섬을 침공하면서 벌어진 양국의 전쟁에 영국군으로 참전하여 900여 명의 새파랄게 어린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는 지켜본 캘럼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끝난 지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블랙아웃 증상까지 경험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캐트린의 두 아들이 벼랑 아래로 떨어

어진 사고 당일, 마침 근처에 있었던 그는 서둘러 아이들을 구하러 나섰지만 끝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사고가 벌어지기 전만 해도 캐트린과 켈럼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인처럼 지냈지만, 캐트린이 세상과 벽을 쌓아버린 후 켈럼은 그저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하나 둘 사라지는 어린 아이들, 서글픈 죽음과 비극이 공존하는 섬에서 펼쳐지는 스릴러

치명적인 실수로 두 어린 생명을 놓쳐버린 레이첼의 삶도 철저히 망가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사고 후 지독한 우울증에 빠진 레이첼은 끝없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의 실수로 두 생명과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고 만 고통에 매일 몸부림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데 포클랜드 제도가 여행객들로 북적이던 어느 휴일, 보트 투어에 나선 가족들의 찻머이 어린 아이 하나가 실종된다. 3년 전부터 섬에서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차례로 발생했고 그 때마다 섬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발을 헛디뎈 바닷속으로 떨어졌을 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이가 세 번째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섬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인다. 2,000명 남짓한 주민들 중에 괴물이 끼어서 살고 있다는 흥흥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분명히 섬에 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없앤다는 확신에 찬 의견들이 떠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해 실종된 아이를 찾아 나서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던 캐트린까지 수색에 동참한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칼날만 갈고 있던 캐트린은 자식을 잃고 비통에 잠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안과 보람을 조금씩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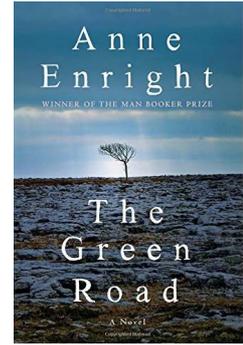
하지만 그런 캐트린을 향해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기 시작한다. 해양 생물학자인 그녀가 해변으로 기어 나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모래 위에 누워 있는 물개들을 총으로 안락사 시키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물개의 특별한 습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캐트린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수군거린다. 급기야 버려진 화물선에서 실종된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고,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한다.

캐트린, 켈럼, 레이첼 세 사람의 시선으로 번갈아 가며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과거 섬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현재 이 세 명의 인물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조금씩 드러난다. 죽은 두 아이, 사라진 세 명의 아이, 말 못할 비밀을 지닌 세 사람의 운명과 거짓말, 배신, 충격적인 반전이 치밀하게 짜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샤론 볼튼(Sharon Bolton)은 『Blood Harvest』 등 일곱 편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 범죄 수사물인 『Lacey Flint』 시리즈는 영화, TV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CWA 골든대거(CWA Gold Dagger) 올해의 범죄소설 부문 결승 후보에 오르는 등 다양한 상에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THE GREEN ROAD
가제 : 그린 로드
저자 : Anne Enright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5년 5월 1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부드러운 유머감각으로 표현된 풍부한 묘사로 저자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보여주는 소설"
—워싱턴 포스트

"인물들의 세밀한 감정을 끌어내는 저자는, 거친 삶에서도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O 매거진

"저자는 이야기는 끝나지만 인물들의 삶이 그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욕 타임즈
2015년 맨부커 상 후보 · 아일랜드 올해의 소설상 수상작

한 가족의 형성과 분열, 그리고 재탄생의 과정을 그려낸 소설

중년에 접어든 네 명의 남녀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아일랜드 서쪽 해안, 카운티 클레어에 자리한 저택 '아디빈'으로 찾아온다. 형제자매 사이인 네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곳엔 어머니 로잘린이 홀로 머물고 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제각기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난 뒤, 로잘린은 가족들의 추억과 흔적이 남은 아디빈을 팔기로 결심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던 자식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모두 불러 모은 것이다. 때는 2005년, 토론토, 말리, 뉴욕, 더블린에서 지내던 로잘린의 두 아들과 두 딸은 유년시절의 기억도 집과 함께 사라질 것만 같은 아쉬움을 느끼며 하나 둘 아디빈에 도착한다.

하지만 사실 네 자녀 모두 꼬이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는 각각의 인생을 견디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계속 원망해왔다. 번덕스럽고 까다로운 로잘린은 마을 유지의 집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사꾼이던 아버지 팻과 결혼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해주는 방법에는 서툴렀던 로잘린은 콘스탄스, 댄, 에밋, 그리고 한나 네 남매에게 늘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였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차례차례 집을 떠났다. 둘째이자 장남인 댄은 1980년, 별안간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동생들은 이후 며칠 동안 엄마가 침대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댄은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뉴욕에서 예술 공부를 하겠다고 나서서 또 한번 로잘린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후 신발 가게 점원이며 패션 사진작가, 호텔 짐꾼을 전전하며 정착하지 못하며 살던 댄은 자신이 남자에게도 끌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90년대 뉴욕을 휩쓸었던 에이즈의 공포 속에서 양성애자로 위태롭게 살아갔다.

둘째 아들 에밋은 형과는 아예 다른 길을 택했다. 아시아, 아프리카를 돌며 자원봉사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살던 에밋은 어머니의 호출을 받았을 때 말리에 머물고 있었다. 걸로 보기에는 착하고 바른 에밋도 어릴 때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애착 관계의 문제에 계속 시달리며 살았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지내면서도 자신보다 지저분한 개에게 애정을 쏟는 그녀를 보며 지독한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다. 에밋이 세상을 떠돌며 남을 도우며 사는 것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속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나름의 추억과 상처, 실패로 깨진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다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한편 막내딸 한나는 서른일곱 살이 된 한나는 유명한 배우가 되려고 기를 쓰며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실패와 절망을 술로 달래다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만다. 급기야 예정에 없던 아이까지 임신하는 바람에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찰나에, 엄마의 호출로 고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네 형제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일랜드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첫째 콘스탄스는 동향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혼자 사는 엄마 로잘린에게 평생 인정을 받지 못하는 딸이었다. 콘스탄스는 최선을 다해 엄마를 챙기고 보살폈지만, 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딸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유방암일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진 후, 오랜 세월 엄마 때문에 시달린 콘스탄스의 속앓이는 한층 더 극심해진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아비딘에 모인 식구들은 이제 노년기에 막 접어든 엄마를 보며 옛 기억을 떠올린다. 먼저 떠난 아버지와의 추억, 즐거웠던 일들과 잊지 못할 순간들을 공유하며 웃기도 하지만 로잘린은 자식들 중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냉정한 말로 아이들에게 또 다시 일침을 놓는다. 네 사람은 반발심을 느끼며 수긍하지 못하지만, 차분히 이어지는 로잘린의 이야기는 이들의 생각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스스로도 외로움과 싸우며 고립감에 시달리던 로잘린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큰 거울이 되어 각자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춰준다.

한 가족의 분열, 각자의 이기심과 연민이 어우러져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틈과 그것을 메우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작가 특유의 힘과 위트가 결합된 탄탄한 문장으로 풀어낸 소설로, 현재 영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2개국에 판권 계약되었다.

<저자 소개>

앤 엔라이트(Anne Enright)는 더블린 출생으로 여러 편의소설과 비소설 한 권을 발표했다. 소설 『The Gathering』으로 맨부커 상을 수상했으며 『The Forgotten Waltz』로는 ‘앤드류 카네기 메달(Andrew Carnegie Medal)’ 소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소설은 올해의 아일랜드 소설로 선정되었다.

제목 : HOME FIRES

가제 : 화룻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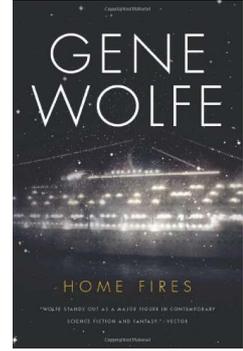
저자 : Gene Wolfe

출판사: Tor Books

발행일: 2011년 1월 1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SF 소설



기억을 파일로 저장하는 뇌 스캔 서비스, 사이보그가 난무하는 미래 사회 평범한 가정의 단면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 지구는 에너지원이 거의 다 고갈되어 자연과 인간의 힘을 함께 모아야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다.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된 지구의 한계가 현실로 다가오자 더 나은 행성을 찾기 위한 인류의 우주 개척과 탐험이 줄을 잇지만, 같은 목적으로 우주를 누비던 외계종족 오스와 침예한 갈등까지 빚어지고 만다. 결혼이 '계약'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이 미래 사회에서, 대학 동창으로 만난 스킵과 쉘은 사랑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군인인 쉘은 인류와 오스 종족과의 갈등이 극화되자 우주로 파병되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아직 신혼의 단꿈을 제대로 꾸기도 전에, 그렇게 부부는 이별을 해야 했다.

문제는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아쉬움만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주 공간과 지구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달라서, 쉘이 우주 전쟁에서 몇 개월간 싸우는 동안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갔다. 게다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시간 속에 사는 동안 노화도 다른 속도로 진행되어, 쉘은 스킵은 신혼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외모를 유지하지만 스킵은 훌쩍 나이가 들게 된다.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스킵과 쉘은, 결국 지구 시간으로 20년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다시 만난다. 변호사가 되어 막대한 부를 쌓은 40대 스킵과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외모는 그대로지만 전쟁에서 얻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쉘. 감격적으로 재회한 두 사람은 20년 전에 미처 누리지 못한 결혼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스킵은 쉘을 위해 놀라운 선물도 한 가지 준비했다. 아내가 우주로 나가 있는 동안 장모님이 그만 저 세상으로 떠나셨고, 쉘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장모님의 '뇌 스캔'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뇌 스캔은 한 사람의 성격부터 평생 축적된 기억을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사람의 뇌에 임시로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막힌 기술이었다. 그리하여 바네사라는 여성에게 '업로드'된 장모님의 뇌 데이터는 매일 정해진 이용료만 지급하면 살아 생전의 말투나 행동, 성격, 기억 모두 바네사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로를 몹시도 그리워했던 애뜻함이나 이런 특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새 출발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대로지만, 익숙함보다 낯선 기분을 숨길 수 없었다. 둘은 뼈격대려는 결혼 생활을 되살리기 위해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함께 카리브 해를 여행하면서 소원해진 관계에 불씨를 지피려고 했던 부부의 계획이 좌충우돌 혼란의 연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년 만에 재회한 부부, 우주 전쟁에서 돌아온 아내와 떠난 크루즈 여행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거액을 들여 ‘마련한’ 장모님의 판박이도, 호화로운 집과 풍족한 생활도, 그간 두 사람이 겪은 변화의 틈새를 다 채워주지는 못해 떠난 여행은 우선 장모님 역할을 하던 바네사가 다른 존재로 ‘업로드’되어 배 위에 나타날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크루즈 선에 고객센터 일을 하게 됐다는 그녀는 버지니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해 쉘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해적 일당이 배를 장악하고 돈 많은 승객들을 골라 몸값을 요구하는 어이 없는 일까지 벌어진다. 스킵이 비상한 두뇌를 십분 활용하여 승객들 중 일부를 골라 용병대를 조직해서 겨우 골치 아픈 해적을 소탕하는데 성공했지만, 바다 위 크루즈 선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살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반 자살 클럽에다, 복수를 위해 나타난 외계 종족 오스 일당들까지 등장하고, 급기야 살인과 폭발 사고까지 터진다. 게다가 스킵은 아내의 손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쉘이 몸에 맞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주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혼돈에 빠진 크루즈 여행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공상과학과 미스터리가 합쳐진 묘한 분위기의 소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아가 혼란스러운 인물들이 뒤죽박죽 엉켜 종잡을 수 없는 결과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진 울프(Gene Wolfe)는 탁월한 공상과학과 판타지 소설가로 인정 받고 있다. 『The Book of the New Sun』, 『The Wizard Knight』, 『A Borrowed Man』 등 20편이 넘는 소설과 수백 편의 단편을 발표했으며, 네블러상 장편 및 중장편 부문, 아폴로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SF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NON-FICTION

제목 : LEADING TEAMS

가제 : 성공을 부르는 팀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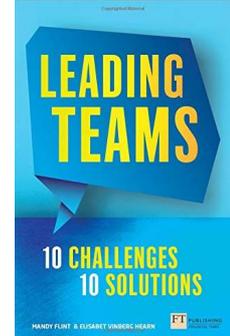
저자 : Mandy Flint, Elisabet Vinberg Hearn

출판사: FT Press

발행일: 2015년 10월 9일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경영



바쁘다는 핑계로 각자 할 일만 하는 대신, 환상의 팀워크로 효율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줄이는 법

대부분의 회사가 팀 단위로 일을 한다. 하지만 ‘팀워크’의 본래 의미처럼, 실제로 여러 명이 모이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팀의 일원으로 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참여를 안 하는 동료부터 성격이 안 맞아서 부딪히는 경우 등 팀별 업무는 원만하게 굴러가기보다 삐걱거리는 일이 더 많다.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커녕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20년간 전 세계에서 200 개가 넘는 팀들을 만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조언을 제공해온 두 저자는 그간의 경력과 저자들이 25년간 자신들이 이끈 팀에서 직접 깨달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팀워크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그 돌을 치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또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팀 협력의 문제점 열 가지를 추려서, 각자가 속한 팀이 그 중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평가하고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책은 각 장마다 열 가지 문제점이 하나씩 제시되고, 자체 평가, 문제 사례, 문제점의 탐색, 해결 방안, 팀과 리더의 행동, 팀과 리더의 생각과 감정을 차례대로 설명한 다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수 있는 평가 질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두 저자는 책에 제시된 해결 방안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때로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고, 효과가 입증되어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방법들이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해결책에 주목하여,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인 팀이라는 구조상 항상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특성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방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실천에 옮기면 정해진 목표와 함께 다른 골칫거리도 해소되는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드니 오래 전부터 쌓이고 묵혀오기만 했던 팀과 팀원들간의 문제들을 따로 시간 내서 이야기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만한 에너지도, 시간도 없다고들 푸념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다른 팀이, 혹은 다른 팀원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두 저자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고, 눈 앞에 닥친 업무만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팀 전체의 변화를 위해 나설 때 더 즐겁게,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 책에서는 단계별 솔루션과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팀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침체된 팀의 분위기를 깨우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1장. 신뢰 쌓기
- 2장. 갈등과 긴장감 해소
- 3장. 팀원간의 정보 공유
- 4장. 참여 유도
- 5장. 투명성, 개방성의 향상
- 6장. 장기적인 사고 능력
- 7장. 성과도 평판도 모두 우수한 팀
- 8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팀
- 9장.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똘똘 뭉칠 줄 아는 팀
- 10장.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팀

요약

팀워크 향상 워크숍

<저자 소개>

맨디 플린트(Mandy Flint)는 각 조직체의 변화와 개선을 돕는 업체 'Excellence in Leadership'의 CEO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과 함께 일해왔다.

엘리자벳 빈버그 현(Elisabet Vinberg Hearn)은 리더십 컨설팅 업체 'Think Solutions UK Ltd'의 CEO로 H&M, 이케아 등의 업무 개선을 도왔다.

제목 : THE SERENGETI RULES
가제 : 세렝게티 법칙
저자 : Sean Carroll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과학/생물



"저명한 학자인 저자가 엮어낸 이 생태계로의 여행은, 분자부터 생태계까지 전반적인 자연 법칙을 펼쳐내어 왜 현대 생물학이 인류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대한 학문인지 설명한다."

—에드워드 윌슨

우리 몸의 세포부터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종류와 숫자를 조절하는 신비한 자연 법칙의 발견

다양한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면서 살아가는 아프리카 대초원 지역이나 각양각색 수생동물들이 살아가는 저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떻게 저 다양한 동물 종이 유지되는 것일까? 또한 우리 몸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 질병이 생기지 않는 한, 몸속 장기들이며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어떻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데 어떻게 그런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저자는, 모든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이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정리했다. 과학계에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학자들을 소개하는 한편, 이 위대한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들, 이 같은 자연적인 조절이 우리의 건강과 인간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구 전체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거대한 먹이사슬의 틀 속에서 각자의 서열에 맞는 개체 수와 몸집, 색깔을 유지하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포유류들을 축약된 본보기로 삼아, 인체 세포까지 자연계에 속하는 모든 생명체의 수를 '조절'하는 신기한 법칙을 접할 수 있다.

먹이사슬이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건 1920년대, 찰스 엘튼이라는 학자를 통해서였다. 옥스포드 재학생이던 시절, 엘튼은 탐험대의 일원으로 찾아간 북극에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 플랑크톤과 어류부터 시작되는 먹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직접 목격했다. 최저 서열에 해당하는 플랑크톤과 어류는 바다 새가 잡아 먹고, 이 새는 북극 여우와 물개의 먹이가 되고, 이 둘은 북극곰이 생존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엘튼은 이처럼 포식자와 먹이로 구성된 한 집단에서 생물 종마다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역할에 따라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가장 적합한 개체수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포식자는 먹이가 되는 생명체의 숫자를 제한하여 생태학적 지속성을 지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조절되는 균형이 깨질 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 공원에서 사슴이나 엘크의 숫자가 제대로 조절되지 못해 초목이 황폐화되고, 수질 오염으로 과잉 성장

한 조류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퍼져 나가 생태계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의 몸에서는 세포의 숫자가 조절되지 못하면 치명적인 전이성 암 조직이 되어버린다.

저자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과 균형의 원리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모잠비크의 고롱고사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보존에 성공한 사례 등 깨진 균형을 바로잡는데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함께 보여준다.

<목차>

머리말: 기적과 경이로움

I. 모든 것이 조절된다

1. 인체의 지혜
2. 자연의 경제학

II. 생명의 논리

3. 조절의 일반 법칙
4. 지방, 피드백, ‘신비한 곰팡이류’
5.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III. 세렝게티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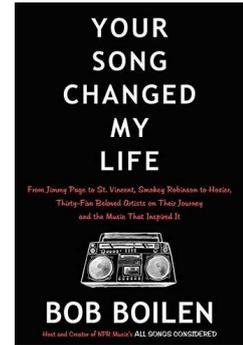
6.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한 종류도 있다
7. 세렝게티의 논리
8. 또 다른 종류의 암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션 B. 캐롤(Sean B. Carroll)은 수상 경력이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 교육자로 현재 위스콘신-메디슨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에서는 과학교육 부대표를 맡고 있다. 『Endless Forms Most Beautiful』, 『Brave Genius』, 『Remarkable Creatures』 등의 저서를 발표했으며, 내셔널 북 어워드 비소설 부문 결선 후보에 선정되었다.

제목 : YOUR SONG CHANGED MY LIFE
가제 : 인생을 바꾼 노래들
저자 : Bob Boile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대중문화/음악



최고의 음악가 35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생을 바꾼 음악’,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한 곡의 노래나 음악이 한 사람에게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음악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짜릿하고도 가슴 울리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우연히 들은 노래 하나, 어쩌다 손에 들어온 음반 한 장, 친구를 따라 찾아간 공연장에서 느낀 감동이 한평생 음악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어지거나, 도무지 극복하기 힘든 창작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한 순간 그 수렁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음악적 영감이 활활 타오르는 경험을 실제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사 NPR에서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사랑 받는 진행자이자 음악가인 저자는 음악계의 전설 같은 인물들과 새로운 별로 떠오른 신예 음악가들 35명이 경험한 바로 그 순간의 감동을 모아 이 책에서 전한다. 지미 페이지(레드 제플린), 세인트 빈센트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록밴드 시규어 로스의 존시, 인디 포크 밴드 본 이베어의 저스틴 버논, 캣 파워, 토크 헤즈의 데이빗 바이른, 너바나의 데이브 그롤, ‘가장 미국적인 밴드’로 일컬어지는 월코의 제프 트위디, 제니 루이스, 펑크 록 밴드 슬리터 키니의 캐리 브라운스틴, ‘캣 스티븐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인권 운동가 유수프 이슬람 등 다양한 국가의 재능 넘치는 음악가들이 자신을 음악의 길로 데려온 노래와 처음 만났던 운명적인 순간을 회상하며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 역시 겨우 열두 살이던 1965년 8월의 어느 날, 비틀즈의 콘서트가 펼쳐진 공연장에서 5만 6,000여 명의 관중들과 함께 열광하던 그 날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털어 놓는다. 아홉 살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스피커를 귀에 바짝 대고 가장 좋아하는 AM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처음으로 접한 비틀즈의 음악은 저자를 사로잡았다. 저자는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중에 딱 하루를 골라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틀즈 콘서트 장에서 있던 날을 고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젊은 음악가 세인트 빈센트에게는 자신의 집 앞에 정차한 트럭에서 갑자기 CD가 가득 담긴 상자 하나가 떨어져 쏟아진 날이 바로 그런 그런 순간이 되었고, 캣 스티븐스는 존 레논이 부른 ‘Twist and Shout’를 듣고 삶이 바뀌었노라고 이야기한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이례적인 사건과 우연이 겹쳐지면서 다가온 음악적인 깨달음과 감동의 순간들은 이 음악가들의 재능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 다듬고,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여 릴레이 경주를 하듯, 수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음악가들에게 다시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음악의 엄청난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목차>

1. 지미 페이지
 2. 캐리 브라운스타인
 3. 스모키 로빈슨
 4. 데이빗 바이른
 5. 세인트 빈센트
 6. 제프 트위디
 7. 제임스 블레이크
 8. 콜린 멜로이
 9. 트레이 아나스타시오
 10. 제니 루이스
 11. 데이브 그롤
 12. 캣 스티븐스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밥 보일렌(Bob Boilen)은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NPR의 음악 프로그램 'All Songs Considered'의 기획자이자 진행자로, 신예 음악가들의 연주를 생방송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Tiny Desk Concert'의 진행도 맡고 있다.

제목: MARKETS OF PROVENCE

가제: 프로방스 시장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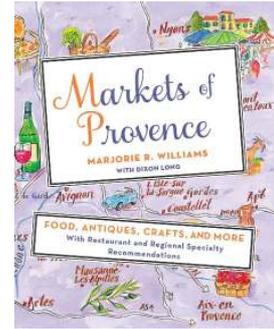
저자: Marjorie R. Williams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여행



"저자가 소개하는 지역별 치즈나 야채 가게 등 많은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상점들은 한 팔에 시장 바구니를 든 햇살 가득한 여행을 꿈꾸게 한다"

특산품, 수공예품, 농산물, 골동품 등 매력적인 프로방스 지역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장 안내서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푸르른 하늘, 눈부신 태양, 지중해의 기후가 어우러진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역의 특별하고도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수 없이 많은 그림과 영화, 책으로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프로방스에 직접 방문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무궁무진한 매력을 제대로 보고, 맛보고,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2012년 발표된 후 2만 부 이상 판매된 책 『MARKETS OF PARIS』에서 시장의 묘미를 소개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프로방스 지역으로 눈을 돌려, 중세 시대부터 현재까지 프로방스의 깊은 전통이 가장 제대로 살아 있는 시장에서 그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남쪽으로는 엑상 프로방스, 북쪽으로는 방투 산, 동쪽으로는 알프드오트 프로방스, 서쪽으로는 론 강에 이르는 이 지역 곳곳에는 약 200곳의 시장이 마을마다, 작은 소도시마다 열린다. 시장을 둘러보는 것이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저자는, 2012년부터 프로방스 곳곳을 누비며 시장을 탐험해왔다. 그리고 계절마다 시장에 등장하는 갖가지 물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바뀌는지, 여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상품과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시장마다 규모나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살이 조사했다. 저자는 프로방스 어느 지역을 가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마을 시장을 방문해보면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그 수많은 시장 가운데 상품의 품질과 종류, 특별한 점들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엄선한 30곳을 집중 탐구하여 이 시장들에서 접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과 주요 상품들은 물론, 지역적인 특색, 전통, 상품에 담겨 있는 지리적인 특성까지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여 소개한다.

프랑스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농산물이며 사람들의 관습, 공예품, 문화를 피부로 느껴보면 그 어떤 관광지를

가보는 것보다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책은 '월요 장', '화요 장'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그 날 열리는 시장들을 소개하여 어느 때 프로방스를 방문하더라도 일정에 맞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저자가 추천하는 시장을 '꼭 가봐야 할 곳'과 근처에 머문다면 한 번 둘러보면 좋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지도를 함께 제공한다. 각 시장은 전통 시장, 베틀시장, 골동품 시장, 지붕이 덮인 실내 형태의 시장,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저녁에 열리는 시장, 수공예품 시장, 특산물 시장, 지역 정부가 주관하는 농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소개된다.

혼자서 둘러보든 여러 사람과 함께 둘러보든 각 시장을 가장 제대로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점을 꼭 찍어 주는 편리한 정보들은, 일분일초가 아까운 여행 기간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재미는 두 배로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퇴색된 프로방스 지역의 전통이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시장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습득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프로방스 지역 시장의 종류

시장을 제대로 즐기는 요령

일요 시장

- 꼭 가봐야 할 곳(4곳)

- 그 외 시장들(9곳)

월요 시장

- 꼭 가봐야 할 곳(5곳)

- 그 외 시장들(6곳)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지역별 특산물

음식점

시장에서 써 먹으면 유용한 프랑스어

<저자 소개>

마조리 R. 윌리엄스(Marjorie R. Williams)는 NPR, <허핑턴 포스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된 책 『Markets of Paris』의 공동 저자로,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여행기와 음식, 시장을 소개해 왔다. 현재 메사추세츠 주 캠브리지 에 거주하고 있다.

제목 : CARTOON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가제 : 만화로 읽는 미국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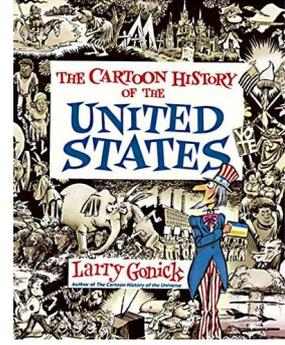
저자 : Larry Cornick

출판사: Harper Collins

발행일: 1991년 8월 1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만화



"역사적 정보를 담은 빛나는 글과, 비꼬는 듯한 유머 감각이 엮인 만화" —LA 타임즈

미 대륙의 발견부터 1990년대까지의, 참신한 시각을 담아 코믹한 만화로 정리한 미국 역사

버지니아, 매릴랜드 주의 하원의원들이 독립 전쟁 이전에는 ‘버제스’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먼로주의’가 마릴린 먼로와 아무 상관이 없고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미국 수정헌법 제 14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자마자 떠오르는 사람? 스푸트니크(인공위성 이름)과 비트니크(‘비트족’을 일컫는 말)의 차이를 아는 사람? 아마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익살스러운 만화로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미국 역사만 훑어봐도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사건과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0년 넘게 수학,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주제를 골라 만화로 흥미진진하게 재탄생시키는 일에 몰두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1585년, 영국이 미 대륙에 처음 도착한 때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를 정리했다.

만화라는 특별한 표현 방식과 더불어, 저자는 “서쪽을 향해 줄지어 이동하던 마차 행렬이 미국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차들 맨 끝에 달려 있던 특별한 마차, 즉 노예들을 가득 싣고 일명 ‘소울 트레인’으로 불리던 캐러밴에 관한 이야기는 오로지 앞만 보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쓴 역사에 쏙 빠져 있다.”는 대담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미국 역사상 인종 차별주의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극심했는지에 관한 노골적인 설명은 물론이고 1960년대에 마약 문제가 얼마나 들끓었는지에 대해서도 저자 본인의 경험까지 더하며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한 그 날은 당시 열여덟살 정도였던 나와 고등학교 친구 두 명이 난생 처음으로 폐요테 환각제를 경험한 날이기도 하다.”는 고백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레이건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의 세금 정책, 그 때 처음 등장해 미국의 잘 사는 노인층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버러지 같은 놈들은 싹 없애버려!”라는 영어 표현의 뿌리,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개개인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을 얼마나 중시했던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는 의견까지, 다소 과격하지만 호기심을 자아내는 역사 속 이야기들이 장난끼 가득한 만화와 함께 이어진다. 이름 정도만 겨우 알고 있거나 단 한 줄, 몇 가지 특징으로만 정의되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사건 중심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여, 단편적

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대신 깊은 인상을 얻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585년 영국 식민지의 건설로 본격적인 미국 땅이 개발되기 전, 누가 언제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책 첫머리에 간략하게 소개된다. 국가의 설립과정, ‘잭슨 민주주의’라는 말을 탄생시킨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생애, 토머스 제퍼슨의 역할에 이어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설립과 도산까지의 과정, 걸프전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역사를 신선한 시각으로 한 번 훑어볼 수 있는 특별한 역사서다.

<목차>

1부: 1585-1865

머리말: 누가 발견했을까?

1. 영국인들이 심기 시작한 것들
2. 새로운 식민지와 병아리
3. 점점 커가는 식민지, 먹고 살기 위한 대책
4. 꼬마 비버부터 전지전능한 쇠고기까지

(이하 생략)

2부: 1865-1991

2부 서문

11. 파괴와 재건
12. 기차길이 시작되는 곳
13. 노동의 고통
14.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다
15. 전쟁과 평화, 그리고 워런 하딩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래리 고닉(Larry Gonick)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MIT에서 과학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Muse> 매거진에 만화를 기고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만화로 그리고 있다.

제목 : RAW. VEGAN. NOT GROSS

가제 : 맛있게 즐기는 생채식

저자 : Laura Miller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6년 5월 1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건강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생채식을 스트레스 없이 맛있게 즐기는 방법

새해가 되면서 또 다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채식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 중에서도 ‘생식주의’가 주목 받고 있다. 채식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식재료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이 생식주의는 사실 여러 사람들을 질겁하게 만든다. 삼시 세끼를 모두 채소와 야채로만, 그것도 가공하지도 않고 전혀 익히지 않은 상태로 먹어야 한다고 하니, 평소에 동물성 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생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어온 사람들도 크나큰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맛은 당연히 포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체념한다. 음식과 여행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테이스트메이드(Tastemade)’에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며 인기몰이 중인 저자는, 이런 편견을 불식시켜줄 이야기와 사진만 봐도 침샘이 고이는 매력적인 레시피를 이 책에 담았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과일과 야채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을 빼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원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된다.

저자는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해 음식에 있어서만은 어떤 규칙이나 제약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생채식주의의 개념을 처음 접하고 묘한 도전 정신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실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생 채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장에 다니고 가끔 여행도 하고 지인들과 혹은 가족들과 외식할 일도 많은 시대에, 생채식 메뉴가 나오는 식당을 고르거나 집에서 챙겨가려고 생각하면 며칠도 못 가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저자는 한 끼도 빼놓지 않고 생 채식만 하느라 진을 빼고 고작 1개월 정도 그렇게 애를 쓰느라 실망하고 괴로워하다가 건강에 나쁜 음식을 폭식하느니, 생식의 비율을 처음부터 100 퍼센트로 채우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며 참신한 ‘라이프스타일’은 기존에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더 아름답고 날씬하고 새로워진 버전으로 재탄생하려면, 예전의 습관이며 자신의 모습, 생활 방식을 다 갖다 버리라고들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급진적인 방식은 소중한 자신의 한 모습을 없던 일처럼 지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못난 모습도 사랑할 줄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가꾸어줄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

기한다. 식물성 식품이 기본 토대가 된 식생활이 건강한 삶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저자는, 생채식을 지레 겁을 먹거나 고집스러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만 실천할 수 있는 융통성도 없는 식생활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아무런 압박감 없이 즐겁게 수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책에서 아낌없이 제시한다.

저자는 특유의 넘치는 유머 감각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는 생채식 식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음식과 신체의 이미지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꼬집고, 지나치게 광분하며 한 가지 식생활에 목숨을 걸다가 다른 방법으로 옮겨 다니는 번덕스러운 식생활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10년간 채식주의자로 살면서 저자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들은 입맛을 돋우고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아침식사부터 평상시 간편하게 즐기는 저녁식사, 소중한 사람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빼놓을 수 없는 파티 음식, 물리치기 힘든 음료와 디저트 등으로 분류하여 먹음직스러운 사진과 함께 소개된다.

<목차>

머리말

아침식사

도시락 메뉴

샐러드

평일 저녁메뉴

파티 음식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

달콤한 디저트, 간식

<저자 소개>

로라 밀러(Laura Miller)는 유튜브 ‘테이스트메이드’ 채널에서 위 책과 동일한 제목의 쇼 ‘Raw. Vegan. Not Gross’를 시작하여 조회 수가 7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생채식 디저트 전문 제조업체 ‘Sidesaddle Kitchen’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보기에도 좋고 만들고 먹기에도 간편한 채식주의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